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7~4/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열반경(2)개역본한글대장경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6	도표로읽는천수경입문	목경찬	민족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담마빠다(법구경)깨달음의노래	이중표 역주	불광출판사
3	초발심자경문(강설)	지묵	우리출판사	8	영화스님의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4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9	불교개론:공부인을위한불교안내서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5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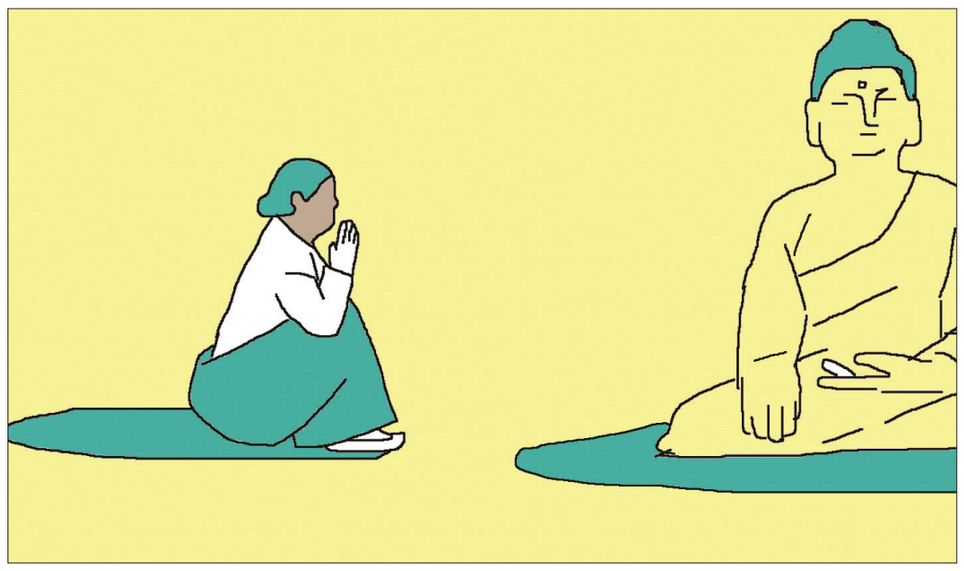
책세상

‘어머니’라 쓰고, ‘부처님’이라 읽다



모정불심
박원자 지음
조계종출판사
1만9000원

스님, 재가자 28인의 절절한 사모곡
현대불교신문 인기 연재시리즈 묶어
좋은 부모는 어떤 삶 사는지 보여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도사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는 원산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은 19세에 말없이 집을 나왔고, 보름만에 다시 집을 찾아 출가의 뜻을 밝히고 불문에 들었다. 이후 원산 스님의 어머니는 스님을 다시 찾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현재에 충실할 뿐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아들 셋, 딸 다섯을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냈다.

대강백 관응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고 강주의 자리에 오르고, 통도사라는 대찰의 주지를 맡아도 어머니는 원산 스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스님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돌아가시기 한 해 전, 자신을 보러온 아들스님에게 이같이 고백했다.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을 때, 매일 저녁 동네 정류장으로 나가 기다렸어. 막차가 들어올 때까지.”

행여 자식의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했던 구순 노모의 뒤늦은 고백에 원산 스님은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뛰어난 수행자들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다. “신은 세상에 고루 존재할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출가수행자들의 생애와 수행에 대한 글을 30년 이상 꾸준히 써온 박원자 작가가 ‘좋은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화두를 들고 여러 스님과 수행자들을 찾아 질문하고 얻은 귀한 가르침을 책으로 펴냈다.

박 작가의 저작 〈모정불심〉은 현대불교신문에서 1년 6개월을 인기리에 연재했던 시리즈를 묶은 것으로 스님과 재가수행자 28인의 사모곡이 담겼다.

저자는 대학시절 불교에 입문한 뒤 꾸준히 마음공부를 했는데, 부모가 되자 개인으로서의 수행과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의 수행이 많이 다르단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스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떠한 어머니였기에 저리도 훌륭한 수행자를 자식으로 두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걸까,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하며 스님 뒤의 어머니란 존재가 궁금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잘 살아야 자식도 잘 기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떠한 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인지”를 스님께 여쭙기 시작했다.

전 조계종 종정이자 ‘절구통 수좌’라 불릴 만큼 치열한 구도행을 펼쳤던 법전 스님,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54안거를 성만한 우리 시대의 대표 수좌 월암 스님 등을 비롯한 23인의 스님과 수행자 5인이 들려주는 ‘어머니’ 이야기는 묵직한 감동과 여운을 준다.

스님들에게 듣는 어머니 이야기는 곧 출가 이야기이기도 하다. 출가할 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키워주신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연도 다양하다.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따듯하게 위안받기도 한다.

어린 나이에 느닷없이 절에 맡겨지자 매일 인기척만 나면 달려 나갔다가 울며 돌아왔다는 법전 스님, 힘든 삶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자비명상을 만들어낸 마가 스님, 앞서 소개했듯 막차시간까지 출가한 아들을 기다렸다는 원산 스님 어머니의 이야기는 출가로도 끊을 수 없는 애틋한 부모 자식의 정을 보여준다.

반면 출가한 자식을 놓지 못해 집착하고 괴로워했으나 아들딸스님보다 더 깊은 수행자로 거듭난 어머니도 있고, 자식의 출가를 적극 지원하고 축하해준 어머니도 드물지 않다. 딸 셋의 출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발심한 일진 스님 어머니, 아들과 딸 두 자식을 모두 출가시키고 더더욱 깊은 수행자로 사는 예진 스님과 경국 스님의 어머니, 사미계를 받고 인사차 들른 아들이 하루 자고 가려 하자 “스님, 견성하셨나요”란 한 마디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준한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는 ‘중생 구제’의 큰 뜻을 품은 자식을 더 너른 품으로 보듬어주는 모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애절한 스님들의 사모곡은 어머니는 결국 나의 부처님임을 알게 한다. 따스한 햇볕이 있기에 만물이 생명의 꽃을 피우듯 어머니는 우리의 육신과 인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햇살과 같다.

‘어머니,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천수경 바른 이해 돕는 안내서



천수경, 의례로 읽기
이성운 지음
정우북스
1만5000원

한국불교는 ‘〈천수경〉 신앙’이라 할 정도로 〈천수경〉의 다라니 천수주(대비주)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 〈천수경〉은 천수다라니를 중심으로 의례에서 활용하는 것이지 상호 독립적인 의례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치 〈천수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고 생각하는 불자들도 있다. 그래서 다른 경전과 의궤와 달리 〈천수경〉은 여러 의례에서 활용되는 것을 모아 놓아 사실상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천수주 염송 이후 사방찬 도량찬을 하지만 사방으로 감로수를 쇄수도 하지 않고 쇄수했다고 이해하며 그래서 도량이 청량해졌다고 찬탄한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게 되어 일어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체를 마음으로 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의궤가 독송용으로 모여진 것을 〈천수경〉이라는 하나의 경전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태”라는 게 이성운 동방대학원대학교수의 주장이다.

2011년 발간 저서 보완해 재발간
“의례로 읽을 때 천수경 이해돼”

이성운 교수가 발간한 저서 〈천수경, 의례로 읽기〉는 현행 한국불교의 〈천수경〉은 천수다라니행법, 도량엄정행법, 참회행법, 준제행법, 서원행법, 설단행법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의례’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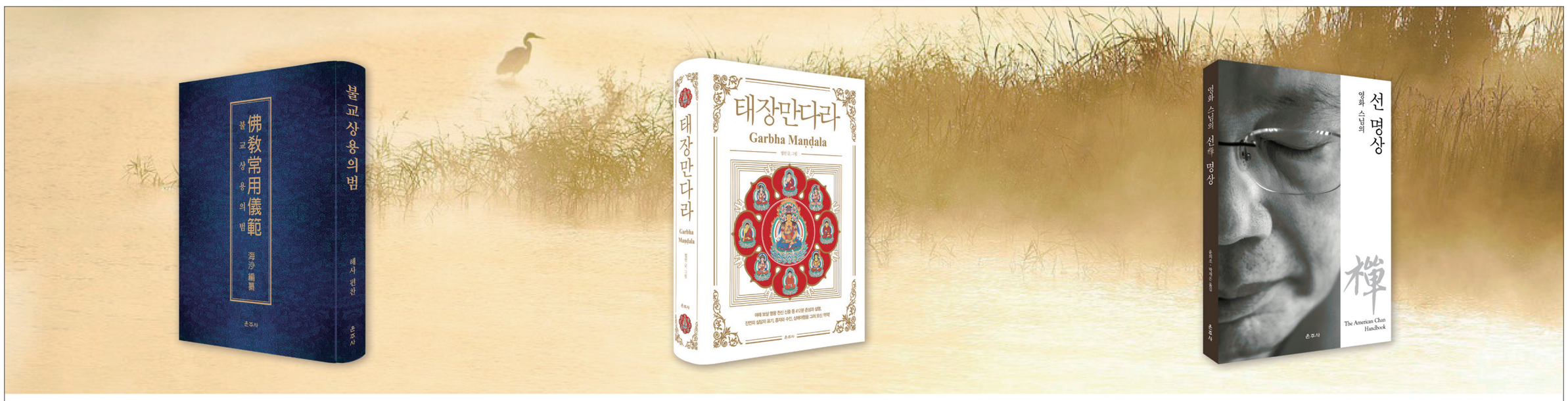
이성운 교수는 여러 행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나눠보지 않고 연결해서 하나의 의례로 이해하다 보니 이상한 분과와 해석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책은 2011년 3월 정우서적에서 〈천수경, 의궤로 읽다〉라는 제목으로 첫선을 보였고, 14년만에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됐다.

앞선 책과 다른 점은 개경게와 준제행법을 보완하고 첫판에서 발생했던 오자 등을 교정하고 윤문했다.

이성운 교수는 개정판 서문에서 “의례의 정형화된 실천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한국불교의 ‘현행’ 천수경에는 적어도 다섯 종의 의식 행법(行法)과 서두 포함 최소 6종 정도의 의식 의문이 합해져 있다”면서 “천수다라니의 활용 관련 의례 의식의 의문이 합해져 있으므로 다른 의례 의식일 때는 달리 활용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읽을 때 ‘현행’ 천수경의 의미가 바르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을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688쪽/값 100,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